

造林貸付地内 立木 國家에서 買收

山林廳은 部落山林契나 民間人이 國有林을 貸付받아 造林하고 育林해 온 나무를 受貸付者가 伐採하지 않고 國家에 賣却하기를 希望할 경우, 이를 '92年度부터 年次的으로 모두 買收해 주기로 하였다.

山林廳에 따르면, 造林貸付制度는 주로 6. 25 직후의 山林荒廢期에 國民의 힘에 의해 國有林을 早期綠化할 목적으로 추진했던 제도로서 山林綠化에 크게 이바지 하여 왔으나, 산림의 公益的價値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國유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의 직접 조림을 확대하면서 '70. 8. 1부터 이를 中斷하였다.

그러나 50년대에 심은 조림대부지내 임목들은 대부분 代採適期(伐期令)에 到達하고 있어 장기적 투자만해온 受貸付者로서는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였으나 木材價格의 하락과 농촌의 인력난등으로 인한 採算性때문에 일부 수대부자들은 직접 벌채하여 매각을 하지 않고 정부에서 그 임목을 사주도록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의 입장은 미래에 세계의 목재자원이 크게 줄어들어 수입마저 어려워질 것에 대비하여 국내의 목재는 可及의 배지 않고 備蓄해야할 처지이기 때문에 조림대부지내 임목을 국가에서 사들이는 일은 수

대부자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미래를 위한 節伐政策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一石二鳥의 바람직한 政策이며

현재 전국의 造林貸付地는 貸付後 分收林으로 轉換한 임지를 포함하여 約14萬ha에 달하고 있으며, 마지막 조림대부지가 伐期令에 도달하는 것은 2010년대가 될 것으로 예측되어 1992년부터 매년9千ha内外의 造林貸付地内 立木을 매수하여 2017년까지 16년동안 매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따라서 山林廳은 조림대부지내의 임목이 벌기령에 가까워진 受貸付者들은 국가에 立木買收를 의뢰할것인지 스스로 벌채할것인지를 가급적 今年안에 조속히 결정하여 줄것을 바라고 있는 실정으로서 立木買收는 貸付期間이 오래된 임지내의 임목부터 買收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부받은 후 公園, 保安林等 法定 制限林에 편입되어 民願의 소지를 안고있는 林地(約52千ha推定)와 國有林密集地域 및 林業振興促進地域의 立木을 우선 買收하게 될 것이며, 買價格은 鑑定院의 鑑定評價額을 參考하여 결정하게 된다.

山林廳은 앞으로 造林貸付地内 임목을 국가에서 매수하거나 受貸付者가 벌채한 후에는 그 林地를 山林廳에서 引受하여 직접 經營할 計劃이다.

모자랄때 내가많이 쓰는것은
남의것을 빼앗아 쓰는 것이다. -전기-